

에프씨비투웰브 주가조작 의혹..檢, 수사 확대

홍석희 · 입력 2009. 11. 8. 14:01 · 수정 2009. 11. 8. 14:01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에프씨비투웰브의 주가 조작 의심세력이 또 다른 상장사 주가도 조작한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에프씨비투웰브는 태런트 태진아씨와 견미리씨가 투자한 사실이 알려져 관심을 모았다

8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진경준)에 따르면 최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분석 과정에서 에프씨비투웰브 주가 조작세력이 또 다른 3개 상장사 주가 조작에 개입한 단서가 나왔다.

검찰 관계자는 "에프씨비투웰브를 포함, 유가증권·코스닥 상장 4개사에 같은 주가조작 세력이 개입했고 거액의 시세차익을 올린 정황이 포착됐다"며 "알려진 시세조종 기법이 모두 동원됐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알려진 주가 조작 행태는 호재성 공시를 띄우고 유명 연예인의 투자사실을 홍보, 개인들의 추격매수를 유도한 뒤 거액의 시세차익을 내는 수법 등이다. 세력이 '손을 댄' 회사들은 대부분 시가총액 1000억원 미만 상장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주가조작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회사는 10여개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은 빠르면 이달 말께부터 관련자 소환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이에 따라 에프씨비투웰브 대표이사 등은 검찰 조사에 대비, 변호인 선임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 에프씨비투웰브의 서울 본사와 경기 성남 연구소 등 6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여 회계장부 등을 확보한 바 있다.

한편 에프씨비투웰브 주가는 지난 6월 1일 주당 1만3400원에서 8월 14일에는 13만4500원으로 10배 넘게 뛰어 올랐다. 그러나 주가조작 개입 의혹으로 곤욕을 치른 태진아씨와 견미리씨는 유상증자 참여 시 '보호예수기간 1년' 조항에 묶여 실제 시세차익은 거두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태씨와 견씨 역시 수사 필요에 따라 소환 조사할 계획이지만 직접 수사 대상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검찰 관계자는 "두 연예인의 투자 사실은 수사 초점이 아니다"며 "아직은 계획이 없지만 조사를 하더라도 참고인 신분"이라고 말했다.

/hong@fnnews.com홍석희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First-Class경제신문 파이낸셜뉴스 구독신청하기](#)]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